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침습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종단연구\*

이 나 빈                      심 기 선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유 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타인과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침습적인 기억을 개인의 삶의 중심적 사건으로 여기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동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0대에서 6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21개월의 간격으로 총 2회 온라인 서버이를 실시하였으며 1차 시점에서 총 11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시점에서 총 48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설문 모두에 응답하고, 세월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제외한 443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1차시의 침습기억과 2차시의 사건중심성 간의 관계를 1차시와 2차시의 사회적 공유가 유의하게 이중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과 청년 및 중년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적 기억이 집단 기억화 되는 과정에 사회적 공유가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검토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급이 큰 재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왜 기억하고 왜 그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주요어 : 세월호 참사, 일반 시민, 침습기억, 사회적 공유, 사건중심성, 이중매개효과, 종단연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 E-mail: Ahn12@ewha.ac.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무능한 정부의 대응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거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일반 시민들 역시 TV나 사회 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사건으로 인한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였다(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이처럼 집단 트라우마 사건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 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심리적 환경에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Knudsen, Roman, Johnson, & Ducharme, 2005).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사건을 추모하는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서울경제, 2017.04.16. '세월호 참사 3주기 미안해 잊지 않을게... 전국이 노란 물결', 연합뉴스, 2017.04.22.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려.. 목포 신항 메운 세월호 추모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 역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슬픔,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 연구 결과로도 지지되는데 세월호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손승희(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인이 없는 중, 고등학생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슬픔 및 분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건과 관련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비의도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촉진한다(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즉,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일정 시기가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사건과 관련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을 침습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아직 수습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미디어를 통해 관련

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 자극은 트라우마 관련 기억을 촉발시킨다. 이처럼 사건과 관련된 내·외적 자극이 주어지면 관련된 사고가 떠오르게 되는데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비의도적으로 회상되는 것을 침습적 외상 기억(intrusive trauma memory)이라 한다(Ehlers, Hackmann, & Michael, 2004). 침습적 사고는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고를 하는 반추(rumination)와는 구별된다. 침습기억은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증상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반해 반추는 트라우마 사건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사고 행위를 나타내며 환경적 촉발요인 없이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Martin & Tesser, 1996).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인들 역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불쑥불쑥 침습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정서적 고통감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비의도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은 사건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Nolen-Hoeksema & Larson, 1999). 즉,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울수록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의도적으로 처리하게 하며(Carver & Scheier, 1998) 이는 사건이 개인의 삶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며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개인의 삶이 보다 성장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때,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조직화하여 통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 Brewin (2011)에 의하면, 트라우마 사건은 기존에 개인이 가진 자기,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무너뜨리는 경험으로 트라우마 사건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식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며 이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사건중심성이 있다. 사건중심성(Centrality of Event)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이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Bersten & Rubin, 2006; 조명숙 & 이영호, 2011). 이를 측정하기 위해 Bernsten과 Rubin(2006)이 사건중심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Central Event Scale) 국내에서는 조명숙과 이영호(2011)에 의해 타당화되었다. 본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 경험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준거로서 작용하는 판단 기준(reference points for everyday inferences), 외상 사건이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환점(turning points in life stories), 그리고 사건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통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components of personal identity)로 이루어져 있다(Bersten & Rubin, 2006; 조명숙 & 이영호, 2011). 선행 연구에서 사건중심성은 외상 후 증상을 예측하고 우울 및 애도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oals & Schuettler, 2011).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부정적인 반응뿐 만 아니라 외상 후의 건강한 적응과도 관련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소윤과 정남운(2015)은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사건중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건중심성은 사회문화적 변인(사회적 지지, 자기개방)과 인지적 변인(의도적 반추, 삶의 의미, 긍정적 재해석)을 통제된 후에도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건중심성이 외상 이후 증상뿐 아니라 건강한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시사하며, Schettlera와 Boals(2011)의 주장과 같이 사건중심성이 외상 사건 이후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나빈, 민문경, 안현의, 천혜정(2015)의 연구

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적 위기 사건에 대한 기억 특성(생생함, 정서 강도, 부정 정서)과 사건중심성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증상 이외의 측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으로 사건중심성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한 사건중심성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병리적인 측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고 조직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사건이 개인의 삶에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중요하며, 집단 트라우마와 같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사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회복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의 위기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가 분열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집단 트라우마와 같이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경험한 사건의 경우 개별 구성원의 적응을 넘어서 사회가 회복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집단 트라우마) 발생 후 사회 구성원들의 회복을 돕고 보다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공유가 있다.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란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나빈, 민문경, 안현의, 천혜정, 2015, Rimé, Finkenauer, Luminet, Zech, & Philippot, 1998.).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경험은 개인의 작업기억상에서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키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특히, 개인이 기존에 가진 인지도식으로 처리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동기를 더욱 유발하며,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감을 낮추고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교현, 1992). 미국에서도 9/11 테러 사건을 경험한 뉴욕 시민의 80% 이상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느끼는 점을 타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Schuster, Stein, Jaycox, Collins, Marshall, Elliot, Zhou, Kanouse, Morrison, & Berry, 2001).

타인과 정서적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정서적 지지를 충족시키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와 회복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Curci & Rimé, 2012). 사회적 공유 과정은 또한 사람들에게 정보적, 인지적 지지를 얻게 하는데 이는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돕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공유는 트라우마 사건의 파편화되고 단편적인 기억을 통합하는 것을 돕는 인지적인 기능을 하며 궁극적으로 트라우마 관련 침습적 기억의 감소를 이끈다. 임상적 연구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에 대한 노출이 외상 후 증상 감소에 유익한 것을 증명해 왔다(Foa & Rothbaum, 1999). 이에 덧붙여 공유의 과정은 대인 간 관계의 향상과 같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이끌며 사회적 신뢰를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Calmes & Roberts, 2009; Haggard, Robert, & Rose, 2011). 즉, 재난을 경험한 개인의 정서적인 회복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 간 유대감과 신뢰감을 증진시켜 사회의 통합을 높이는 것이다. Rimé 등(2010)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시민들의 사회적 공유와 사회 통합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중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공유할수록 사건 경과 3-8주 후 사회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소외감을 낮추며 만족감, 희망, 연대감 신뢰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나빈 등(2015) 연구에서 역시 사회적 위기 사건의 간접 경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공유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매개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위기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만들어 낼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사회적 공유가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Pennebaker와 Harber(1993)는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처 양식의 시간 흐름에 따른 차이점에 주목하여 집단 트라우마의 세 단계 심리사회적 반응 모델을 제안하였다(The three-stage model of collective coping; 그림 1). 이 모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주민 789명을 대상으로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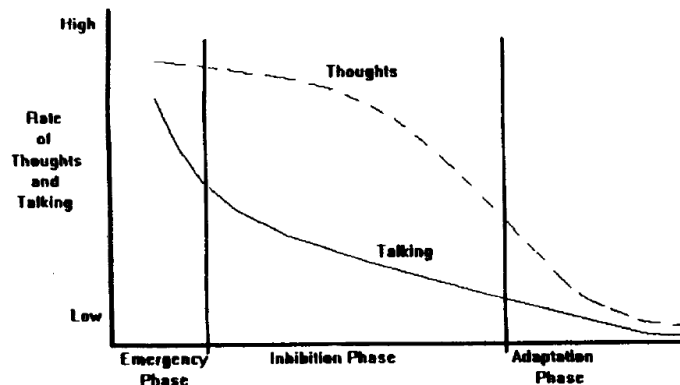


그림 1. The three-stage model of collective coping

프리에타 지진 이후 1주에서 50주까지 총 8차례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적 반응 단계를 구성하였으며, 걸프 전쟁 이후 달라스 거주민 361명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Pennebaker & Harber, 1993). 이 모델에 따르면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양상은 크게 세 단계(응급기, 안정기, 적응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초기 단계(응급기)는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강렬한 정서적 반응과 다양한 사회적 공유가 발생하는 시기로 대략 1개월간 유지된다. 이후 안정기가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한 달 간 사건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반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면, 사회적 공유는 점차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두 달 이후에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이 점차 감소하며 적응기가 나타나는데,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연대감의 증표가 점차 줄어들고 동시에 사회적 유대감도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본 모델은 서구 문화권에서 제안되고 검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앞서 문화권에 따른 교류 양식과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모델은 재난 발생 두 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탐색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일부 연구(Rimé, Paez, Basabe & Martinez, 2010; Curci & Rimé, 2012)에서도 절반 정도의 참여자가 사건 발생 2달 이후의 사회적 공유 수준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Rimé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건 두 달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의 72.2%가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51%의 참여자가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이야기를 하며, 61.1%의 참여자는 사건과 관련된 비의도적인 생각(반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건 경과 이후 1-2달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증상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 지연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Bremner, Southwick, Darnell, & Charney, 1996). Bryant, Nickerson, Creamer, Donnell, Forbes, Galatzer-Levy, McFarlane과

Silove(2015)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대하여 장기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사건 이후 2년까지는 증상이 악화되다가 6년 이후부터 증상이 회복되는 양상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주지영, 허승, 윤영애, 채정호, 2016)에서도 재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집단 트라우마 사건의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침습적인 기억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유 행동 간의 보다 장기적인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과 관련된 기억과 이를 공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건에 대해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과 이를 공유하는 사회적 현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희정, 주혜선, 안현의(2016)는 세월호 참사 발생일부터 사건 발생 1주일까지 발생한 추모행사 관련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추모행사의 주제로 ‘상실에 대한 기억’, ‘사건 발생 원인의 이해’, ‘해결 방안 논의’, ‘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의 유목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전체 추모 행사의 90.2%에서 사건과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주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추모 행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세월호 참사로 유발된 정서를 표출하고, 재난이 주는 메시지를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참사로 인한 상실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문희정, 주혜선, 안현의, 2016). Parkes (2008)에 의하면 재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추모는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현실로 수용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재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동을 통하여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위기 사건에 대한 기억 특성과 사건중심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이나빈 외(2015)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기억 특성 중 생생함과 사건중심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세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며 이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보호요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Kendler, Myers, & Prescott, 2005). 이로 인해 사회적 공유가 재난 사건 이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높은 수준의 비의도적인 생각과 정서적 반응(Nolen-Hoeksema & Davis, 2005),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감(Rime, Paez, Basabe & Martinez, 2010)을 보고한다. 반면, 사회적 공유에 대한 일부 대한 선행연구(Rimé et al., 1998)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공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사건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고 이를 본인의 정체성에 중요하게 통합시키는 과정은 생의 발달 단계에 의해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Steger, Oishi, & Kashdan, 2009; 김상희, 박성현, 2017). 즉,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립시키는 시기에 있는 청년기와 이미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중년기에서 재난 사건을 자신의 삶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유가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대별로 사건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언론사가 광복 이후 일어난 가장 역사적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20대-40대)는 세월호 참사를, 50대 이상은 한국전쟁을 언급하여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한겨레, 2014.12.31. ‘광

복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 2040 세월호, 5060 한국전쟁’), 세월호 2주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다’와 ‘잊고 싶다’간 차이가 존재했다(한겨레, 2016.04.15. ‘나이 적을수록 뇌리에 깊은 상처’). 재난 사건에 대한 기억과 반응에 있어 세대차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공유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중심적 사건으로 여기는 과정에 있어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의도적인 침습적 기억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유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의 간접경험자들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시민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여기는 현상을 사회적 공유 행동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재난의 간접 경험자들에게 있어서 사건에 대한 비의도적 기억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중심적 에피소드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침습적인 기억을 개인의 삶에서 중심적 사건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시의 침습 수준이 1차시와 2차시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 매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공유 수준이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및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사회적 공유 활동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통하여 재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적 중요성

을 넘어서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와 함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20대에서 60대 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기관을 통하여 21개월 의 간격을 두고 총 2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 였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제시하기 전 연 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 는 사람에 한해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적용하여 특정 대상에 편 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표 1 참고). 온라 인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설 계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 였다.

1차 수집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11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수집은 2016 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485의 자료가 수집되었 다. 2회에 걸친 자료수집 시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결정되었다. Williams(1999)에 따르면 재 난경험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은 사건 발생 8개 월 이후부터 회복기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건의 충격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의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는 회복기 단계에서도 재난의 영 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적 삶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단연구를 계 획하였기 때문에 1차와 2차 자료 수집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 복된다고 하는 사건 발생 8개월 이후로 이루어 졌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회복기로 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발생일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시점에 2 차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Williams, 1999; Galatzer-Levy, McFarlane & Silove, 2015).

본 연구에서는 1차와 2차 설문에 모두 응답한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N (%)	
연령	20대	78(17.6)	30대 105(23.7)
	40대	125(28.2)	50대 135(30.5)
성별	남자	223(50.3)	여자 220(49.7)
결혼 유무	미혼	162(36.6)	기혼 281(63.4)
학력	중졸이하	1(2)	고졸 110(24.8)
	대졸	292(65.9)	대학원 이상 40(9.0)
거주 지역	서울	76(17.2)	부산 31(7)
	대구	26(5.9)	인천 22(5.0)
	광주	15(3.4)	대전 15(3.4)
	울산	18(4.1)	경기도 102(23)
	강원도	11(2.5)	충청도 35(7.9)
	전라도	29(6.5)	경상도 58(13.1)
	제주도	5(1.1)	세종시 0(0)

이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 생존자, 목격자, 자신의 지인이 생존했거나 희생되었다고 응답하거나 현장 목격 및 현장 직무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한 간접경험자 44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443명 중 223명은 남성, 220명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22세(SD=10.88)이었다(표 1 참고).

#### 측정도구

##### 침습기억

침습기억은 Horowitz 등(1979)에 의해 개발된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의 하위 척도 침습과 회피 중 침습 척도 7문항(예, 내가 그럴 의도가 없을 때에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ES는 스트레스 이후의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며 이차적 피해를 측정하려는 목적의 연구에서도 다수 활용되어 왔다(이선미, 은현정, 1999). 4점 리커트(0=‘전혀 없다’, 1=‘드물게 있다’, 2=‘가끔 있다’, 3=‘자주 있다’)로 측정되며, 침습기억은 총 7문항으로 사건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심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행동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반응을 제한하였으며,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1차시 침습기억 변인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90이었다.

##### 사회적 공유

사회적 공유는 Sutin과 Robins(2007) 자서전적 기억의 현상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기억 경험 질문지(MEQ)의 하위 척도 중 공유하기(sharing; 6문항; 예,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다.) 하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공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반응을 제한하였으며,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1차시 사회적 공유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51, 2차시 사회적 공유 변인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874이었다.

##### 사건중심성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하고 조명숙, 이영호(2011)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사건중심성 척도(Central Event Scale; 이하 CES)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충격적 사건을 떠올리면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는(1=전혀 일치하지 않음, 5=정확히 일치함) 20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세 하위 요인의 총 합산 점수가 클수록 해당 요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세 하위 척도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 경험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준거로 고려되는 정도인 판단 기준점(reference point; 예, 나는 새로운 경험들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그 사건 전후로 개인 삶의 흐름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개인의 관점,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를 의미하는 전환점(turning point; 예,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면, 이 사건은 그 중심에서 다른 많은 경험들로 이어질 것이다.), 사건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통합된 정도를 의미하는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central component of personal identity; 예,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이다(Boals, 2010; Schuettlera, & Boals, 2011). 본 연구는 위의 세 하위 요인들이 자서전적 기억을 구성하는 요인들로서 상호관련이 높다는 Bernsten과 Rubin(2006)의 보고에 따라 하위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총 합산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건중심성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2차시 사건중심성 변인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65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한 후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침습적 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1차시의 침습 수준이 1차시와 2차시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중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확인하였다. CFI와 TLI 값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 값의 경우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 그리고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는 부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성별, 연령 집

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은 223명, 여성은 220명으로 약 1:1의 비율이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Levinson(1996)이 제시한 인생주기에 따라 17-39세를 청년 집단(N=183), 40-59세를 중년 집단(N=260)으로 구분하여 집단 비교를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96~4.45(SD= .74~ 3.98)의 범위를 보였다. 상관 분석 결과, 1차시 침습기억,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 2차시 사건중심성 변인들 간 유의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N = 443)

	1	2	3	4	5	6
1. 연령	1					
2. 성별	-.006	1				
3. 1차시 침습기억	.081	-.058	1			
4. 1차시 사회적 공유	.123**	.122*	.264**	1		
5. 2차시 사회적 공유	.016	.109*	.319**	.519**	1	
6. 2차시 사건중심성	.057	.032	.511**	.289**	.553**	1
평균	41.22		4.45	3.18	2.94	2.16
SD	10.88		3.98	.75	.86	.75
왜도	-.217		.646	-.254	-.103	.195
첨도	-1.036		-.626	.005	-.285	-.797

\*p < .05, \*\*p < .01.

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표 2 참고).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형과 자료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chi^2$  적합도 지수 외에 TLI, CF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모두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 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 우도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 모형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1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경로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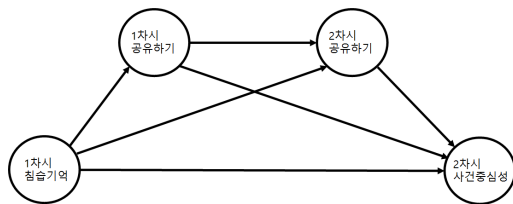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표 3. 연구 모형의 적합도(N = 443)

$\chi^2(df)$	TLI	CFI	RMSEA
506.170(192)	.943	.952	.061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N = 443)

경로	B	S.E	$\beta$
1차시 침습기억 -> 1차시 사회적 공유	.460***	.069	.353
1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회적 공유	.508***	.055	.478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회적 공유	.257***	.068	.186
2차시 사회적 공유 -> 사건중심성	.445***	.039	.566
1차시 침습 -> 2차시 사건중심성	.438***	.048	.402
1차시 공유 -> 2차시 사건중심성	-.110***	.040	-.132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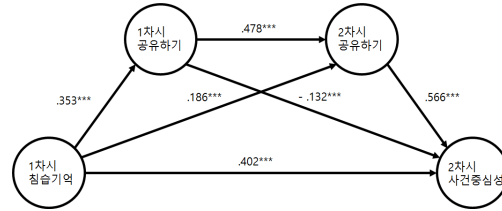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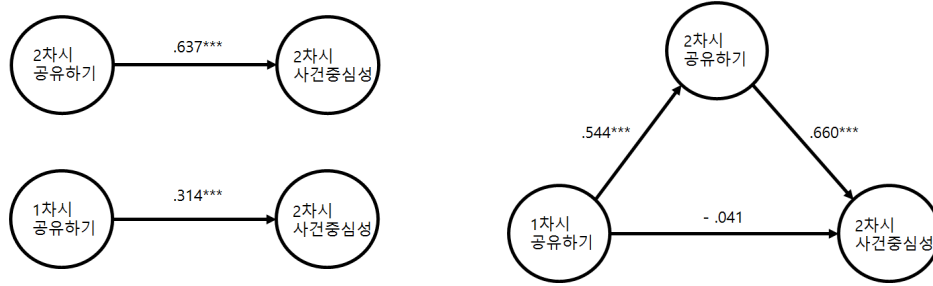


그림 3. 1차시 침습기억과 2차시 사건중심성 및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 간 관계(N = 443)

한 모든 주요 변인들 간 경로계수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했다(표 4 참고). 반면, 1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경로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앞서 이루어진 단순 상관분석 결과, 1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관계가 정적이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관계 방향의 변화는 2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상관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억제효과의 일종으로 보여진다(Cheung & Lau, 2008). 이에 2차시 사회적 공유의 억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억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2차 사회적 공유의 억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4. 2차시 사회적 공유의 억제효과 검증(N = 443)

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건중심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2차시 사회적 공유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크게 감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부호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lta\beta = -.355$ ). 또한 1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건중심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1차시 침습기억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약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lta\beta = .023$ ). 이는 2차시 사회적 공유 변량이 1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건중심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 변량을 억제했기 때문에 1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건중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던 것이 2차시 사회적 공유 변인이 함께 투입되면서 2차시 사건중심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상관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억제효과 중에서 디플레이션 된 억제효과라 볼 수 있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 매개효과 검증

패널 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래핑을 통해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공유의 유의한 종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간접효과 크기는 .106이었다(표 5 참고).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다집단 분석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연령집단에서 모두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평균과 표준편차는 남성 집단에서 1.95~4.68( $SD = .78 \sim 4.10$ ), 여성 집단에서 1.97~4.22( $SD = .68 \sim 3.85$ )의 범위를 보였다. 상관 분석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들이 유의한

표 5.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N = 443)

독립	경로		종속	간접효과
	매개			
침습 →	1차시 사회적 공유	2차시 사회적 공유 →	사건중심성	.106**
침습 →	2차시 사회적 공유		→ 사건중심성	.114**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성별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 남성(N=223), 대각선 위 여성(N=220)

	1	2	3	4	평균	SD	왜도	첨도
1. 1차시 침습기억		.311**	.348**	.537**	4.22	3.85	0.809	-0.222
2. 1차시 사회적 공유	.243**		.539**	.319**	3.27	0.70	-0.335	0.094
3. 2차시 사회적 공유	.310**	.490**		.515**	3.03	0.85	-0.117	-0.296
4. 2차시 사건중심성	.496**	.262**	.586**		2.19	0.70	0.132	-0.771
평균	4.68	3.09	2.84	2.14				
SD	4.10	0.78	0.87	0.80				
왜도	0.502	-0.141	-0.078	0.258				
첨도	-0.911	-0.032	-0.259	-0.848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 연령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 청년(N=183), 대각선 위 중년(N=260)

	1	2	3	4	평균	SD	왜도	첨도
1. 1차시 침습기억		.235**	.325**	.482**	4.62	3.84	0.577	-0.707
2. 1차시 사회적 공유	.299**		.550**	.255**	3.23	0.76	-0.294	0.088
3. 2차시 사회적 공유	.312**	.474**		.559**	2.94	0.88	-0.066	-0.461
4. 2차시 사건중심성	.546**	.330**	.558**		2.20	0.74	0.224	-0.672
평균	4.22	3.10	2.93	2.11				
SD	4.16	0.72	0.85	0.76				
왜도	0.755	-0.227	-0.165	0.170				
첨도	-0.498	-0.072	0.022	-0.979				

\* $p < .05$ , \*\* $p < .01$ , \*\*\* $p < .001$ .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표 6 참고). 연령집단의 경우, 청년 집단에서 1.87~4.22(SD= 0.72~4.16), 중년 집단에서 2.02~4.62(SD= .71~3.84)의 범위를 보이고 있었다. 상관 분석 결과, 청년 및 중년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들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표 7 참고).

앞서 분석을 통해 검증된 사회적 공유의 중단적 매개 모형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우선 각 집단의 요인 구조 틀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경우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성별  $\chi^2 = 751.589$ , TLI=.936, CFI=.946, RMSEA=.046; 연령  $\chi^2 = 791.735$ , TLI=.930, CFI=.940, RMSEA=.048). 이후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elta\chi^2 = 25.280$ ,  $\Delta df = 18$ ). 또한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형태 동일성 모형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두 집단에서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 간의 관계

표 8. 성별 및 연령 집단에서 동등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N=443)

	$\chi^2$		df		TLI		CFI		RMSEA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모형1: 형태 동일성 제약	751.589	791.735	392	392	.936	.930	.946	.940	.046	.048
모형2: 측정 동일성 제약	776.869	823.493	410	410	.937	.931	.944	.938	.045	.048
모형 3: 집단 간 등가 제약	784.012	826.863	416	416	.938	.932	.944	.939	.045	.047
최종모형	784.012	826.863	416	416	.938	.932	.944	.939	.045	.047

표 9. 기저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 모델 간의 집단 차이 비교(N = 443)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Delta df$		$\Delta \chi^2$		$\Delta TLI$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1차시 침습기억 → 1차시 사회적 공유	1	1	0.076	1.416	.001	.000
1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회적 공유	1	1	0.747	.615	.001	.000
1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건중심성	-	1	-	.443	-	.000
2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건중심성	1	1	4.758	.027	.000	.000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회적 공유	1	1	0.783	.164	.001	.000
1차시 침습기억 → 2차시 사건중심성	1	1	0.003	.119	.001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5	7	7.143	3.370	.001	-.001

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집단의 경우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elta \chi^2 = 31.758$   $\Delta df = 18$ ) (표 8 참고). 그러나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지수가 형태 동일성 모형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에서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 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Byrne, Shavelson, Muthen,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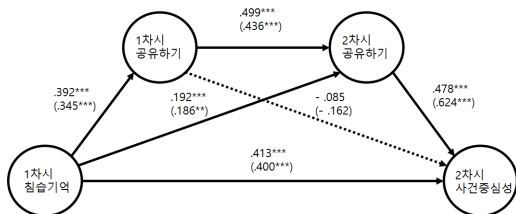
주요 변인들의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두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 제약 모델을 측정 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등가 제약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에서  $\chi^2$ 와  $df$  값의 차이가 성별의 경우  $\Delta \chi^2(2, N=443) = 8.272$ , 연령의 경우  $\Delta \chi^2(6, N=443) = 3.370$ 으로 유의수준 5%에서 집단 간 등가 제약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후 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 모형의 카이 제곱 차이를 통해 집단별로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참고). 이에 최종 모형은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의 집단 간 경로계수

표 10. 최종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N =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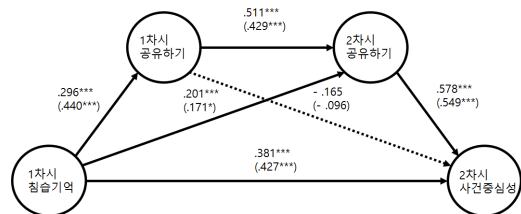
모수	성별				연령			
	여성		남성		청년		중년	
	B(S.E)	$\beta$	B(S.E)	$\beta$	B(S.E)	$\beta$	B(S.E)	$\beta$
1차시 침습지역 → 1차시 사회적 공유	.470(.089)***	.392	.436(.092)***	.345	.382(.089)***	.296	.533(.096)***	.440
1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회적 공유	.581(.088)***	.499	.483(.080)***	.436	.569(.072)***	.511	.478(.096)***	.429
1차시 침습지역 → 2차시 사회적 공유	.268(.099)***	.192	.260(.098)**	.186	.289(.089)***	.201	.231(.111)*	.171
2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건중심성	.356(.056)***	.478	.521(.053)***	.624	.451(.053)***	.578	.439(.057)***	.549
1차시 침습지역 → 2차시 사건중심성	.429(.069)***	.413	.467(.067)***	.400	.428(.064)***	.381	.460(.073)***	.427
1차시 사회적 공유 → 2차시 사건중심성	-.073(.065)	-.085	-.150(.057)**	-.162	-.143(.056)*	-.165	-.086(.065)	-.096

\* $p < .05$ , \*\* $p < .01$ , \*\*\* $p < .001$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계수(표준화계수): 여성집단(괄호 안은 남성집단)

그림 5. 성별에 따른 사회적 공유의 중단적 매개효과(여성 N=220, 남성 N=223)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계수(표준화계수): 중년집단(괄호 안은 청년집단)

그림 6. 연령에 따른 사회적 공유의 중단적 매개효과(청년 N = 183, 중년 N = 260)

차이는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의 값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집단의 경우, 여성과 남성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공유의 유의한 중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중단적 매개효과 크기,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간접효과 크기가 더욱 컸다(표 11 참고). 연령 집단에서는 청년 및 중년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공유의 유의한 중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중단적 매개효과 크기는 청년 집단에서 더욱 컸으며,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간접효과 크기는 중년 집단에서 더욱 컸다(표

표 11.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N = 443)

경로		간접효과				
		성별		연령		
독립	매개	종속	여성	남성	청년	중년
침습기억 → 1차시 사회적 공유	2차시 사회적 공유	→ 사건중심성	.090**	.117**	.113**	.097**
침습기억 →	2차시 공유	→ 사건중심성	.089**	.139*	.106*	.128**

\* $p < .05$ , \*\* $p < .01$ , \*\*\* $p < .001$ .

11 참고).

###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침습적으로 떠올리는 기억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과 정체성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구조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어떤 사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습적 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그 관계를 ‘사회적 공유’ 요인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Rubin, 2005; 이나빈 등, 2015). 특히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이 침습적 기억을 개개인의 삶에서 중심적 사건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차시의 침습 수준이 1차시와 2차시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2차시의 사건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침습적 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성별, 연령에 따라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간접 노출 집단 즉,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차시 침습기억과 2차시 사건중심성 간 관계를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가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연구 모형에서 확인된 것처럼 1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건중심성 간 경로가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2차시 사회적 공유의 억제효과가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의 높은 상관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차시에 사회적 공유가 높은 집단의 경우, 자연스럽게 2차시에도 활발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만큼 사회적 공유의 정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1차시 세월호 참사를 침습적으로 기억할수록 1차시 사회적 공유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2차시 사회적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2차시에서의 사건중심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차시 사회적 공유의 억제효과는 1차시 사회적 공유와 2차시 사회적 공유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각각이 2차시 사건중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1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건중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차시 까지 사회적 공유가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의도치 않게 떠올리는 것은 그 기억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공유를 지속하게 되면 사건이 발

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들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질적 차이, 공유 수준에서의 차이가 보고되었고 (Rime, Mesquita, Boca, & Philippot, 1991; Rimé, et al., 1998; Kendler et al., 2005), 이나빈 등(2015) 연구에서도 위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유 및 사건중심성 수준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비교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습기억 및 사건중심성 수준에서 성별 차이( $t=1.214, p=.225$ ;  $t=-.682, p=.496$ )와 연령 차이 ( $t=-1.019, p=.309$ ;  $t=-1.245, p=.214$ )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 수준의 경우 연령 차이( $t=-1.741, p=.082$ ;  $t=-.186, p=.853$ )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별 차이( $t=-2.579, p=.010$ ;  $t=-2.299, p=.022$ )는 유의하였으며, 여성 집단이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 수준 모두 높았다. 또한 침습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청년과 중년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유의했지만,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1차시 침습기억이 2차시 사건중심성을 촉진하는 과정과 이를 1차시와 2차시 사회적 공유가 매개하는 정도가 여성과 남성 집단, 청년과 중년 집단에서 상당히 유사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억을 공유하는 일, 특히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개인의 기억들을 의미 있게 처리되지 못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침습적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에 중심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정 주제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고 형태를 반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도적 반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적 과정인 숙고(reflective ponder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침습적 회상은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의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이다(Rubin, Boals, & Bertsen, 2008). 이처럼 침습기억은 비의도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평가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침습적 사고를 억제하고 회피하려 할수록 관련 사고의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증상이 유지되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Wegner, 1989; Ehlers & Clark, 2000 재인용) 때문에 침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도적 재평가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의도적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건 중심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을 사회적 공유 활동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사고과정으로 이어져 평가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 내적 과정인 의도적인 반추로서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경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형태로 자동적이고 통제된 과정이다 (Martin & Tesser, 1989).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공유로서, 경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Rimé, 2009).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정은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반추를 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을 이해하고 기존의 인지 도식에 동화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반면(Pennebaker, 1989), 사회적 공유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미를 구성하고, 기존의 인지 도식에 동화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 지표들과 정적 상관이 높았던 것이다(Pennebaker & Hoover, 1986; Pennebaker, Barger & Tiebout,



1989). 본 연구 역시 사회적 공유가 사건에 대해 침습적으로 기억하려는 현상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중심성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침습적 회상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사건에 대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건이 개인의 인지도식을 변화시킬 만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imé, 1995). 즉, 침습적 회상은 사건 경험을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부정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간접적 경험이라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부터 상당한 침습적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의 심리적 현실에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사회적 공유라는 활동이 개인적 삶에 중심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이는 침습적으로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타인과의 대화와 같은 자기 노출 행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점차 의도적이고 자발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사고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침습적 기억은 자신의 경험한 바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alhoun & Tedeschi, 1999;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재인용). 또한 침습적 기억이 현재 사건 중심화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기억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억제효과 분석 결과, 1차시에 얼마나 공유했는가 보다는 1차시 사회적 공유가 2차시 사회적 공유로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현재 사건중심화를 촉진하는 과정에 보다 핵심적이었던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 사건에 대한 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를 세대 별 차이, 남녀 차이 등으로 심화

확장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 및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관계없이 사회적 공유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를 삶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사회적 공유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간접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크기는 집단 별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종단적 매개효과 크기,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매개효과 크기가 더욱 컸다. 즉,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습기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의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공유가 충격적인 사건 경험 이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기존 연구결과들과 불일치한다(Kendler, Myers, & Prescott, 2005; Rime, Paez, Basabe & Martinez, 2010). 물론, 충격적 경험 이후 무엇을 적응의 결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집단에서 사회적 공유의 적응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적응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유 활동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연령집단의 경우 1차시 및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종단적 매개효과 크기는 청년집단에서 더욱 큰 반면 2차시 사회적 공유를 통한 매개효과 크기는 두 집단 모두 비슷했다. 이는 사건중심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1차시에서 2차시까지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침습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청년 집단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유된 기억은 개인의 삶 속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기억으로 구성되어 재평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사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사건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기억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가들이 실질적인 사회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에 대한 사적 기억들이 어떻게 집단기억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이 사회적 공유를 통해 이루어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과거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보다 오늘에까지 지속적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현재 사건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공유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급이 큰 재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왜 기억하고 왜 그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자기보고식 설문문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에 있어서 집단 내 차이가 큰 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경우,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문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평정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침습현상을 측

정하는 척도의 경우, 평정 내용이 드물게 있다(1점)와 가끔 있다(2점)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침습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 문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침습기억의 빈도와 강도에 관심을 두었지만, 침습 내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기억이 보다 더 침습적으로 떠올러지는지, 침습 내용에 따라 침습현상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를 통한 중단적 매개효과 크기가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공유의 상반된 효과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건과 관련된 비의도적 사고가 증가됨으로서 사회적 공유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순환과정이 사건중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며, 높아진 사건중심성이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는 사건 이후 장기간 관련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정서적 잔여물에 의한 우울이나 불안 증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Nolen-Hoeh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증가된 사건중심성이 반드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 후 성장과 같은 의미 형성 과정을 촉진하기도 하고 증상을 강화할 수도 있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종속변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이 추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Boals & Schuettler, 2009; Schuettler & Boals, 2011).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공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인 개인이 상황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반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의 효과를 검토했다. 그러나 사회적 공유의 방식은 보다 약화된 방식으로서 상징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사건에 대해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 역시 사회적 공유 활동이라 할

수 있다(Rimé, 1995).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 역시 침습적 기억과 사건중심성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떤 기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단기억이 사회적 공유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을 특정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기억에 의미 부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윤은하, 김유승, 2016).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 사건을 공유하는 방식, 사건 중심화의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서울경제 (2017.04.16). ‘세월호 참사 3주기 미안해, 잊지 않을게...전국이 노란 물결’. <http://www.sedaily.com/NewsView/1OEO5C5A60>
- 연합뉴스 (2017.04.22). ‘잊지않겠다는 약속 지키려.. 목포 신항 메운 세월호 추모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2/020000000AKR20170422051100054.HTML?input=1195m>
- 한겨레 (2014.12.31). ‘광복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 2040 세월호, 5060 한국전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73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733.html)
- 한겨레 (2016.04.15). ‘나이 적을수록 뇌리에 깊은 상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91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917.html)
- 김교현 (1992).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 81-107.
- 김상희, 박성현 (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대, 20대, 40대 간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 문희정,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6), 15-31.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6). 사회적 공감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재난 이후 사회적 공유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차이. *상담학연구*, 17(6), 183-204.
- 박소윤, 정남운 (2015). 사건 중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16(5), 141-155.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신효정, 최현주,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장유진, 이상민 (2012).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89-309.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안현의, 주혜선, 심기선, 민지원 (2013). 한국판 기억 경험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1), 401-422.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나빈, 민문경, 안현의, 천혜정 (2015). 한국의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23-44.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 501-513.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

- 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조명숙, 이영호 (2011). 사건중심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63-774.
- 주지영, 허 승, 윤영애, 채정호 (2016).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신경정신의학회, 55(3), 168-175.
-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침습적 외상 기억과 외상관련 정서의 종단 관계 연구: 외상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59-183.
- Alea, N., & Bluck, S. (2003). Why are you telling me that?: A conceptual model of the social fun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11*, 165-178.
- Berntsen, D., & Rubin, D. C. (2006).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 Berntsen, D., & Rubin, D. C. (2007). When a trauma becomes a key to identity: Enhanced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predict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417-431.
- Berntsen, D. (2009). Flashbulb memories and social identity. In O. Luminet, & A. Curci (Eds.), *Flashbulb memories: New issues and new perspectives* (pp. 187-205). New York: Psychology Press.
- Boals, A., & Schuettler, D. (2009). PTSD symptoms in response to traumatic and non-traumatic events: The role of respondent perception and A2 criter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1-5.
- Boals, A., & Schuettler, D. (2011). A double 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 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5), 817-822.
- Boals, A., Steward, J. M., & Schuettler, D. (2010).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st traumatic growth by considering event centr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6), 518-533.
- Boals, A. (2010). Events that have become central to ident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1), 107-121.
- Boals, A. (2010). Autobiographical memories that have become central to ident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 107-121.
- Bremner, J. D., Southwick, M., Darnell, M. A., & Charney, D. S. (1996). Chronic PTSD in vietnam combat veterans: Course of illness and substance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369-375.
- Brewin, C. R. (2011).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memory disturba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7*, 203-227.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 Bryant, R. A., Nickerson, A., Creamer, M., O'Donnell, M., Forbes, D., Galatzer-Levy, I., McFarlane, A. C., & Silove, D. (2015). Trajectory of post-traumatic stress following traumatic injury: 6-year follow-up.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6*, 417-423.
- Calmes, C. A., & Roberts. J. E. (2008). Rumin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oes co-rumination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 577-590.
-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0).

-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Sociocultural considerations. In T. Weiss & R. Berger (Eds.). *Posttraumatic growth and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pp.1-14). Hoboken, NJ: John Wiley.
- Calhoun, L. G., & Tedeschi, R. G. (Eds.).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rver, C. S., & Scheier, M. F.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J., Cohen, J., Cohen, P., West, S. G. A., Leona, S., Patricia Cohen, S. G. W., & Leona, S. A.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o. Sirsi) i9780805822236).
- Curci, A., & Rimé, B. (2012). The temporal evolution of social sharing of emotions and its consequences on emotional recovery: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12*(6), 1404-141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Ehlers, A., Hackmann, A., & Michael, T. (2004). Intrusive reexperiencing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Memory, 12*(4), 403-415.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inkenauer, C., & Rimé, B. (1998). Socially shared emotional experiences vs. emotional experiences kept secret: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295-318.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aggard, D. L., Robert, C., & Rose, A. J. (2011). Co-rumination in the workplace: Adjustment trade-offs for men and women who engage in excessive discussions of workplace problem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6*, 27-40.
- Kendler, K. S., Myers, J., & Prescott, C. A. (2005). Sex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isk for major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opposite-sex twin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250-256.
- Knudsen, H. K., Roman, P. M., Johnson, J. A., & Ducharme, L. J. (2005). A changed America? The effects of September 11th o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assump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260-273.
- Lepore, S. J., Ragan, J. D., & Jones, S. (2000). Talking facilitates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n acute stress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99-508.
- Levinson, D. J., & Levinson, J. D.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Knopf.
- Martin, L. L., & Tesser, A. (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R. S. Wyer (Ed.), *Ruminative thought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9, pp.1-47). Hillsdale, NJ: Erlbaum.
- Nolen-Hoeksema, S. & Davis, C. G. (2005). Positive responses to loss: Perceiving benefits and growth.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598-6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len-Hoeksema, S., Wisco, B. E., & Lyubomirsky, S.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5), 400-424.
-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9). *Coping with loss*. Mahwah, NJ: Erlbaum.
- Parkes, C. M. (2008). Bereavement following disaster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63-484.
- Pennebaker, J. W., & Harber, K. D. (1993). A social stage model of collective coping: The

- Loma-Prieta earthquake and the Persian Gulf war. *Journal of Social Issues*, 49, 125-145.
- Pennebaker, J. W. (1989). Confession, inhibition, and diseas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11-244.
- Pennebaker, J. W., & Hoover, C. W. (1986). 5 Inhibition and Cognition. *Consciousness and self-regul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4, 107.
- Pennebaker, J. W., Barger, S. D., & Tiebout, J. (1989). Disclosure of traumas and health among Holocaust survivors. *Psychosomatic medicine*, 51(5), 577-589.
- Pillemer, D. B. (1992). Remembering personal circumstances: A functional analysis. In E. Winograd, & U. Neisser (Eds.), *Affect and accuracy in recall: Studies of 'flashbulb' memories* (pp. 236-26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llemer, D. B. (1998). *Momentous events, vivid memories: How unforgettable moments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our l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illemer, D. B. (2009). Twenty years after Baddeley (1988). Is the study of autobiographical memory fully functional?.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8), 1193-1208.
- Rimé, B. (1995). Mental rumination, social sharing, and the recovery from emotional exposur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271-29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Rimé, B. (2009). Emotion elicits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Theory and empirical review. *Emotion Review*, 1(1), 60-85.
- Rimé, B., Finkenauer, C., Luminet, O., Zech, E., & Philippot, P. (1998). Social sharing of emotion: New evidence and new ques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9(1), 145-189.
- Rimé, B., Paez, D., Basabe, N. & Martinez, F. (2010). Social sharing of emotion, post-traumatic growth, and emotional climate: Follow-up of Spanish citizen's response to the collective trauma of March 11th terrorist attacks in Madri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1029-1045.
- Rimé, B., Philippot, P., Boca, S., & Mesquita, B. (1992). Long-lasting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of emotion: Social sharing and rumina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1), 225-258.
- Rime, B., Mesquita, B., Boca, S., & Philippot, P. (1991). Beyond the emotional event: Six studies on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Cognition & Emotion*, 5(5-6), 435-465.
- Rubin, D. C. (2005). A basic-systems approach to autobiographical mem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79-83.
- Rubin, D. C., Boals, A., & Berntsen, D. (2008). Memor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opertie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traumatic and nontraumatic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people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7(4), 591.
- Schuettera, D., & Boals, A. (2011). The Path to Post traumatic Growth Versu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Cop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2), 180-194.
- Schuster, M. A., Stein, B. D., Jaycox, L. H., Collins, R. L., Marshall, G. N., Elliot, M. N., Zhou, A. J., Kanouse, D. E., Morrison, J. L., & Berry, S. H. (2001). A national survey of stress reactions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5, 1507-1512.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Vergara, A. (1993). Sex0 e identidad de genero: Diferencias en el conomiento social de las emociones en el modo de compartirlas [Sex and gender identity: Differences in social knowledge on emotions and in ways of sharing th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del Pais Vasco, San Sebastian, Spain.
- Wegner, D. M. (1989). *White bears and other unwanted thoughts: Suppression, obsession, and the psychology of mental control*. New York: Viking.
- Williams, D. (1999). Human responses to change. *Futures, 31*(6), 609-616.
- 1 차원고접수 : 2017. 05. 16.  
수정원고접수 : 2017. 08. 09.  
최종게재결정 : 2017. 09. 11.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ha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memory and event centralit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public: Longitudinal analysis**

**NaBin Lee**

**Kisun Sim**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social sharing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intrusive memory of Sewol ferry disaster into the life and identity of general citizens who have indirect experience of that event.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we tried to confirm that the activities that are shared continuously are important activities in this process. To do this, we carried out two online surveys at 21month intervals for adults in 20s to 60s. A total of 1156 data were collected at the first time point, and a total of 485 data were collected at the second time point. In this study, data for 443 respondents to both primary and secondary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those directly rela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ary intrusive memory and the secondary event centrality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the social sharing of primary and secondary. In addition, a multiple 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ex and age. As a resul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haring was significant in both gender group and aged groups, and there was difference in mediation effect size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 and young and middle age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cial sharing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memory of personal memory of Sewol ferry disaster and this study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why ordinary citizens should remember and share the memory of a disaster such as Sewol ferry disaster.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Social sharing, the public, intrusive memory, centrality of event, longitudinal analysis